

2024년 12월

월간 KOCHAM



월간 KOCHAM 정보

발행처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 (KOCHAM)

발행인 유건영

편집인 KOCHAM 사무국

발행일 2024년 12월 12일

홈페이지 kochambr.com

이메일 info@kochambr.com

주소 Alameda Santos 700, Andar 8, Cerqueira Cesar, São Paulo, SP,
CEP: 01418-100



목차

1. 코참 활동
2. 회원사 소식
3.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패션세미나 개최

브라질리아 방문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 참석

브라질교수협회장 면담

회원사 소식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제31회 패션세미나 개최 (11/21)



코참은 브라질 의류협회(ABIV)와 함께, 11월 21일(목) 오후 6시, Bom Retiro에 위치한 K-Square 1층 강당에서 제31회 패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채진원 총영사, 김범진 한인회장, 신치아 김 ABIV 회장을 비롯해 패션 및 의류 제작업계에 종사하는 한인동포 및 관련 학과 재학생들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유건영 코참 회장은 인사말에서 “31회를 맞는 패션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류 업계의 생존 방식도 조금씩 바뀌어 왔다. 코참이 준비한 이 강연이 참석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래 패션 트렌드와 기술, 생산 효율화라는 주제로 SENAI 기술 연구소의 조이스 빠하(Joice Parra) 컨설턴트와 게일라 모레이라(Keila Moreira) 생산 컨설턴트가 강연을 펼쳤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하고 코참이 준비한 기념품을 수령한 후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과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월간 KOCHAM

2024년 12월 제21호

코참 활동

패션세미나 개최

브라질리아 방문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 참석

브라질교수협회장 면담

회원사 소식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제31회 패션세미나 개최 (11/21)



코참 활동

브라질리아 방문 (11/27, 28)

코참 활동

패션세미나 개최

브라질리아 방문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 참석

브라질교수협회장 면담

회원사 소식

공관 및 교민 소식



유건영 회장은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브라질리아를 방문해 연방 하원의원, 국가위생감시국, 노동대법원의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였다.

연방 하원의원인 Yandra Ferreira, General Pazuello, Rosana Valle과의 회의에서 Yandra 의원 보좌관은 브라질과 한국 간 상공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의회 내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Rosana 의원은 19일에 예정된 코참 경제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이어 이뤄진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 이사들과 노동대법원(TST) 장관과의 면담에서 그들은 코참 및 회원사와의 교류를 희망하며, 내년도 코참 행사에 적극 참석하기로 하였다.

코참 활동

패션세미나 개최

브라질리아 방문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 참석

브라질교수협회장 면담

회원사 소식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국회의장 초청 동포 및 지상사대표 만찬 간담회 참석 (11/9)



유건영 회장은 11월 9일(토) 오후 6시,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민병덕, 이소영, 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김소희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채진원 총영사 및 동포 단체, 지상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유건영 회장은 동석한 박성훈, 이소영 의원에게 브라질 진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코참이 주관하고 있는 패션세미나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두 의원은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 가기로 하였다.

정성기 브라질교수협회장 면담 (11/29)



유건영 회장은 11월 29일(금) 오후 2시에 정성기 브라질교수협회 회장을 만나 FINEP 펀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FINEP는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MCTI)에 소속된 공공 기관으로, 브라질의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과학, 기술 및 혁신(C,T&I)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대학을 매개로 기업과 FINEP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며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유건영 회장은 해당 건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고, 정성기 회장은 이에 응한 후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역시 제안하였다.

회원사 소식

프로브라질, Play TV와 콘텐츠 공급 및 현지 제작 협약식 개최

코참 활동

회원사 소식

프로브라질, Play TV와 협약식

공관 및 교민 소식



프로브라질의 김수한 대표는 11월 28일(목) 오후 7시, Rancho Português에서 Play TV와 한국 콘텐츠 공급 및 현지 제작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파울루 시의회가 11월 29일을 'K-Drama의 날'로 제정한 것을 동시에 기념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김형민 상파울루 센터장을 비롯한 한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수한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식은 단지 한국 프로그램이 브라질 방송에 방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류붐을 더욱 확대하고 재생산하여 한국 여행, 한국어 강좌, 한국 유학 등 한류 산업 전반에 중흥기를 가져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프로브라질은 2015년 <해피엔딩>을 시작으로, <아이리스2>, <로봇이 아니야>, <태양의 후예> 등 다양한 인기 한국 드라마를 브라질 지상파에 꾸준히 공급해왔다. 또한, 남미 최초의 한류 전문 매거진 K-Wave를 KBS와 함께 런칭한 바 있다.

김형민 콘진원 상파울루 센터장은 축사를 통해 “브라질과 한국은 음악과 춤을 사랑하고, 열정적이며 감성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 드라마가 브라질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코참 활동

회원사 소식

공관 및 교민 소식

교육원, 한국어 교원 과정 졸업식

김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시범개시

브라질 한인 리더들, 미 대통령 자

원봉사상 수상

공관 및 교민 소식

교육원, 제2기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졸업식 개최



상파울루한국교육원(원장 신일주)은 상파울루 대학교와 함께 11월 6일(화)에 교육원에서 제2기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졸업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USP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수진들과 졸업생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여 졸업을 축하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브라질 현지에 최적화된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2023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3년 12월에 제1기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제2기 졸업생은 총 10명으로, 지난 3월부터 고급 한국어, 한국어 교수법, 교육실습 등 한국어 교육 교육과정을 총 180시간 이수하였으며, 교육원과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출처: 좋은아침)

김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브라질지회와 한인회는 11월 22일(금) K-Square 쇼핑에서 '김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를 브라질 현지에 소개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치의 날'은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11가지 재료와 김치가 제공하는 22가지 건강 효능을 상징하는 날로, 한국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도 기념일로 채택되었다. 특히 상파울루는 2023년 남미 최초로 '김치의 날'을 공식 지정해 주목받았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김치 만들기 체험으로, 참가자들은 직접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김치 문화를 생생히 체험했다. (출처: 한인투데이)

코참 활동

회원사 소식

공관 및 교민 소식

교육원, 한국어 교원 과정 졸업식

김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시범개시

브라질 한인 리더들, 미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

원봉사상 수상

공관 및 교민 소식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시범 개시



재외동포청은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11월 28일(목)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했다.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는 아직 시범으로 운영하는 단계다. 정부는 내년에 정식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해 재외국민들에게 전자정부, 전자금융, 비대면 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쇼핑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뉴스핌)

브라질 한인 리더들, 미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



서주일 민주평통 브라질협의회장과 주성호 한인의료봉사단(KMC) 회장이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백악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두 사람은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한 사업가의 추천을 받아 지난 3월 수상자로 결정되었고, 최근 상패를 전달받았다. 두 사람은 30여 년간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의료 취약 지역에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은 봉사활동을 활발히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미국 최고의 자원봉사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친필서명을 담아 이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출처: 좋은아침)